

알레르기성 鼻炎에 關한 文獻的 考察

金潤子* · 金璋顯**

* 東國大學校 大學院 韓醫學科 小兒科 專攻

** 東國大學校 韓醫科大學

I. 緒論

알레르기성 鼻炎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3代症狀을 特徵으로 하는 疾患⁹⁾으로 鼻鼾, 鼻嚏 등의 概念에 속한다.⁸⁾ 대부분의 알레르기성 鼻炎患者는 알레르기의 家族歷을 가지고 있으며,²⁴⁾ Weeke는 알레르기 疾患을 일으키는 危險要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體質이 가장 큰 危險要因이라고 했다.⁴⁶⁾ 最近 環境汚染, 公害의 增加 등에 따라 世界的으로 점차 增加되는 趨勢에 있으며, 아직 우리나라에는 알레르기성 鼻炎患者의 頻度에 對한 精確한 統計는 없지만 全人口의 약 10% 内外로 생각하고 있다.⁵⁾ 過去에는 成人에서도 發生頻度가 높았으나 最近에는 幼兒나 學令期 兒童들에게도 많이 發生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1)} 小兒의 경우 약 5-9%에서 볼 수 있으며¹²⁾ 最近에는 幼兒때부터 우유나 빵, 계란, 인스턴트 食品의 濫用으로 通年性 鼻炎患者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¹⁾

鼻는 肺와 연관되어져 說明되고 있는데,^{11,39)} 肺는 鼻를 主管하는 것으로서¹⁾

1) 五氣가 鼻에 들어가서 心肺에 간직되므로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하게 되며,^{10,11)} 肺가 外感六淫 특히 風寒에 傷하거나, 內鬱七情으로 臟腑氣血에 影響을 미쳤을때도 鼻塞, 聲重, 流涕, 噴嚏의 症狀이 發生한다.⁴⁰⁾

最近 알레르기 疾患에 對하여 六味地黃湯, 加味通竅湯, 通關散 등의 處方을 使用한 免疫學的 治療에 關한 많은 研究報告가 있었다.^{14,15,17,19,45)}

이에 著者는 알레르기성 鼻炎과 關聯되는 韓醫學的 病症에 關한 文獻的 考察을 하여 약간의 知見을 얻었기에 報告하는 바이다.

II. 本論

1. 備急千金要方

鼻病증 鼻塞하며 常有清涕出할 경우에는 細辛, 蜀椒, 乾姜, 芎藭, 吳茱萸, 附子, 桂心, 皂莢屑, 猪膏의 아홉가지 藥재를 綿에 싸서 酒에 하룻밤 담근

후 猪膏를 取하여 달이는데 附子色이 黃色이 될 때까지 한다. 찌꺼기를 버리고 綿에 싸서 鼻孔中에 넣고 鼻上을 문지른다.

2. 三因極一病証方論

<鼻病證治>

肺는 五臟의 華蓋로 百脈이 모두 肺에서 氣를 取한다. 鼻는 肺의 開闔으로 五臭를 吸引한다. 衛氣가 五臟을 養하여 陰陽의 升降이 이루어지면 鼻가 清氣道가 되는 것이다. 혹 七情內鬱, 六淫外傷, 飲食勞佚하여 清濁이 不分하면 氣가 壅塞하여 각종 鼻病을 發한다. (清涕, 鼻洞, 濁腦, 膿絲, 衄血, 息肉, 鼾) 비록 종류는 다르나 다 이 세가지 原因에 의해 變化된 것 뿐이다.

3. 濟生方

鼻는 肺之候이다. 職欲常和한즉 吸引香臭한다. 만약 七情內鬱, 六淫外傷, 飲食勞役으로 鼻氣가 不宣하고 清道를 調節하지 못하면 壅塞되어 發病한다. 衄, 癰, 息肉, 瘡瘍, 清涕, 窒塞不通, 濁膿, 不聞香臭 이것은 모두 肺臟不調하여 邪氣가 鼻에 蘊積되어 清道가 壅塞된 탓이다. 治療의 原則은 寒則溫之, 熱則清之, 塞則通之, 壅則散之이다.

4. 證治準繩

嚏에 關한 說明이 多樣하다. [靈樞 口問篇]에 黃帝가 묻기를 “嚏는 어찌하여 그런 것 입니까?” 하니 岐白이 답하기를 “陽氣가 和利하여 滿於心하고 出於鼻하므로 嚏가 된다.”고 하고 運氣 嚏에는 세가지가 있다고 說明했다.

劉河間이 이르길 “嚏는 鼻中の 痒으

로 인하여 氣噴하여 作聲하게 되는 것이다. 鼻는 肺竅이고 痒은 火로 인한 것이므로 心火邪熱이 陽明을 犯하여 鼻에서 發하여 痒이 된즉 嚏가 된다. 혹은 日光을 보면 嚏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눈이 五臟의 神華로 말미암아 太陽眞火인 日光이 눈에 비치면 心神이 躁亂하여 上部가 發熱하고 鼻孔이 가려우면서 嚏한다.”고 했다.

仲景이 이르길 “中寒家善欠嚏 其人清涕出發熱色和者善嚏”라 했다.

5. 赤水玄珠

東垣曰, 金匱眞言論에 이르길 “西方白色 入通於肺 開竅於鼻 藏精於肺. 夫十二經脈 三百六十五絡 其氣血 皆上昇於面而走空竅 其宗氣出於鼻而爲臭”라 했다.

難經에 이르길 肺氣通於鼻하니 肺和則鼻知香臭다. 陽氣, 宗氣는 다 胃中生發之氣이다. 비록 이름은 다르나 그理致는 하나이다. 만약 飢飽, 勞役으로 脾胃生發之氣가 損傷되면 營運之氣가 上昇하지 못하여 邪氣가 孔竅를 막아 鼻不利한즉 不聞香臭한다.

6. 萬病回春

鼻病의 脈은 右寸洪數 鼻衄 鼻鼾 左寸浮緩 鼻涕 風邪

鼻塞 聲重 流涕者 肺感風寒也.

(通竅湯)

治感冒風寒 鼻塞 聲重 流清涕. 防風, 羌活, 藁本, 升麻, 乾葛, 川芎, 蒼朮, 白芷 各一錢. 麻黃, 川椒, 細辛, 甘草 各三分. 右剉一劑. 薑三片 葱白三根 水煎 熱服. 肺有火邪 加黃金一錢.

7. 醫學入門

鼻塞證은 모름지기 久新의 慢性和 急性을 問診하여 알아야 한다. 鼻竅於肺로되 香臭를 잘 알아내는 것은 心의 作用이며, 人身이 水升火降하여 營衛가 調和된즉 鼻司呼吸하여 往來不息하는데 만약 寒傷皮毛則鼻塞不利하고 火鬱清道則不聞香臭하니 新者는 感風寒하여 鼻塞, 聲重, 流涕, 噴嚏니 風寒으로 治한다. 九味羌活湯, 參蘇飲, 消風百解散. 久者는 風寒을 조금만 感受하여도 鼻塞證이 곧 發하니 肺伏火邪하여 鬱甚則喜熱惡寒하므로 조금만 感受하여도 內火가 곧 發하니 清金降火에 通氣之劑를 兼하여 쓴다. 涼膈散 加 荊芥 白芷, 川芎石羔散. 반드시 外感이 아니라도 四時에 鼻塞, 乾燥하여 不聞香臭하면 清金降火消痰之劑를 써야하니 清氣化痰丸, 上清丸을 쓴다.

鼻塞이 오래되면 鼻衄나 衄血 또는 鼻淵이나 流津을 이룬다. 鼻衄는 鼻流清涕니 熱微일 경우에는 二陳湯에 川芎, 當歸, 細辛, 白芷, 防風, 羌活, 桔梗을 等分量 하여 生薑을 넣어 水煎하되 薄荷를 조금 넣어 쓰고 이것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자는 芷莢散에 去 薄荷 加 荊芥, 黃金, 神曲, 南星, 半夏 等分量을 食後에 煎服하고 外用藥으로 細辛膏를 쓴다.

8. 景岳全書

<鼻證>

經義:[口問篇]에 이르길 사람의 嚏는 어찌하여 그렇습니까 하니 岐白이 대답하길 陽氣和利하여 滿於心하고 出於鼻하니 嚏하는 것이다. 補足太陽榮眉本하라. 또는 眉上이라 일컫는다.[六元六紀大論]

에서는 陽明所至爲鼽嚏라 했다.

論治:鼻塞證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風寒으로 인해서 鼻塞하는 것은 寒이 腠理를 막아 經絡이 壅塞되어 鼽嚏를 發하는 것이다. 이 證은 대부분 太陽經에 있으니 辛散解表하면 스스로 낫는다. 川芎散이나 神愈散 같은 處方에 麻黃, 紫蘇, 荊芥, 葱白之類를 選擇的으로 使用한다. 만약 火邪가 上炎하여 鼻塞하는 자는 清火해야 한다. 火氣가 微弱한 者는 대부분 上焦가 가까이 있어 心肺로부터 出하니 清火飲이나 黃金知母湯類를 使用해야 한다. 火氣가 甚한 者는 대부분 陽明에서 出하고 혹은 微弱한 頭痛을 兼하니 竹葉石膏湯, 涼膈散類를 使用한다. 만약 風寒에 火氣를 兼한 者는 防風通聖散類를 使用할 수 있다. 항상 鼻塞證이 있는 者는 火氣로 인한 경우가 많고 갑자기 鼻塞證을 發하는 경우는 風寒으로 인한 경우가 많으므로 마땅히 이것을 分別해야 한다.

9. 聖濟總錄纂要

肺는 五臟의 華蓋이며 開竅於鼻하므로 肺氣가 和하면 鼻 역시 和하고 肺氣가 風冷에 感受된즉 清涕, 鼽, 息肉, 不聞香臭 등의 症狀이 생기고 肺에 實熱이 있으면 瘡, 痛하고 腦移熱於腦則 濁涕不已하니 鼻淵이라 한다.

<鼻流清涕>

五臟化液이 遇熱則乾燥하고 遇寒則流行하는데 鼻流清涕하면서 그치지 않는 것은 肺臟이 感寒하여 寒氣가 上達한

즉 그 液이 이와같이 制御되지 못하고 흐르는 것이다. 또한 嚏, 泗, 洩 모두 鼻液이다. 계속해서 흐르면 涕, 肺에서 生한즉 泗涕, 심하면 洩라 한다. 腦冷 鼻塞時出清涕하면 細辛 桂心 甘遂炒 芎藭 附子 各一分, 辛夷 半兩, 木通 二兩 이 약재를 갈아서 棗大로 蜜丸을 만들어 綿보자기에 싸서 鼻中에 넣는다. 氣泄되지 않도록 한다. 만약 약간 이라도 痛症이 있으면 生薑汁을 갈아서 함께 使用하면 낫는다.

10. 醫門寶鑑

鼻는 肺之竅이며 神氣出入之門이다. 肺和하면 五臭을 辨別할 수 있고 不和한즉 諸症이 發한다. 대개 七情, 外感, 六淫으로 鼻氣不宣하고 清道壅塞된 所致이다. 治法은 寒則溫, 熱則清, 塞則通, 壅者散 하는 것이 一般的인 方法이며 心血虧 腎水少 病久不愈者는 養血補腎한다.

鼻塞皆屬肺

新而輕者-麗澤通氣湯, 通竅湯

久而火鬱者-涼膈散(火病) 加芎 芷 荊芥 清氣化痰丸(痰) 葶發餅(外用)

內傷肺胃清氣不能上升者 - 補中益氣湯

鼻鼾 鼻流清涕 肺感風寒

九味羌活湯(傷寒)

細辛膏(外用)

老人은 마늘(蒜) 4-5개만 썰어서 脚底心에 부친다.

11. 東醫寶鑑

鼻鼾 鼾者鼻流清涕也(入門)

鼻中水出曰鼾(內經)

傷風則快然鼻流清涕(綱目)

鼻流清涕者屬肺寒也(回春)

川椒散(治鼻鼾) 紅椒炒 訶子肉 白薑 生桂心 川芎 細辛 白朮 各等分을 粉末로 만들어 한 번에 二錢씩 溫酒로 調服한다.

細辛膏(治鼻塞 腦冷 清涕不止) 細辛 川椒 乾姜 川芎 吳茱萸 各七錢半, 皂角屑 五錢, 桂心 一兩, 猪油 六兩을 달여 猪油를 膏를 만들어 먼저 하룻밤 苦酒에 담근다. 앞의 藥을 달이는데 附子가 黃色이 되면 그만 달이고 綿에 싸서 鼻孔中에 넣는다.

鼻塞 鼻塞皆屬肺(綱目)

寒傷皮毛則鼻塞不利 火鬱清道則香臭不和

新者 偶感風寒 鼻塞 聲重 流涕 噴嚏 - 羌活沖和湯, 參蘇飲

久則略感風寒鼻塞便發 - 清金降火, 涼膈散 加 川芎 荊芥 白芷

鼻塞甚者 禦寒湯

言語門에 嚏에 關한 內容이 있다.

靈樞)黃帝曰 人之嚏者 何氣使然

岐白曰 太陽之氣(一運陽氣)和利而滿於心 出於鼻 故爲嚏

難經)肺外證 面白 善嚏

河間)嚏者 鼻中因痒而氣噴作于聲也

鼻爲肺竅 痒爲火化 是火乘金爲病也

綱目)腠理不密噴嚏不已 欠爲氣乏 嚏爲氣通

12. 漢方眼耳鼻咽喉科學

鼻嚏(噴嚏)를 알레르기성 鼻炎(過敏性 鼻炎)으로 說明하고 鼻鼾는 急性 鼻炎으로 따로 說明했으며, 慢性 鼻炎에 單純性 鼻炎, 肥厚性 鼻炎, 萎縮性 鼻炎에 속하는 것으로 說明했다.

13. 漢方臨床알레르기

1) 季節性 鼻알레르기症

흔히 일정한 꽃피는 季節에만 發生하고 매년 反復되는 特徵을 갖는 花粉症을 말하며 吸引性 알레르기 鼻炎의 代表的 疾患이다. 이것은 특히 急性的으로 나타나며 IgE가 增加하고 가려움증 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特徵이다.

治療)

季節性 알레르기의 發生은 韓方的인 病理에서 理解한다면 肺의 機能이 低下된 肺寒에서 發生된다고 본다. 그러므로 肺의 機能을 亢進시키기 위하여 따뜻한(溫) 藥劑를 服用하므로서 結果的으로 免疫機能을 強化하는 效果가 나타나게 된다. 이때의 處方은 溫熱과 發散藥劑로서 鼻腔部內에 藥效가 浸透하여 抗炎-抗알레르기 作用을 나타나게 한다.

處方1)

感氣와 合病하는 鼻알레르기症(虛症)

葛根湯

(葛根 8g, 麻黃 生薑 4g, 大棗 桂枝 芍藥 3g, 甘草 2g)

處方2)

感氣와 Stress를 兼한 鼻알레르기症 (實症)

參蘇飲

(人蔘 蘇葉 前胡 半夏 乾葛 赤茯 4g, 陳皮 桔梗 只殼 甘草 3g, 生薑二片, 大棗二枚)

處方3)

喘咳 喘鳴 白色痰 재채기 콧물 등 表寒性 鼻알레르기症

小青龍湯

(麻黃 芍藥 乾姜 甘草 桂枝 細辛 五味

子 6g, 半夏 甘草 4g)

2) 通年性 鼻알레르기症

季節에 관계없이 일년내내 또는 週期的으로 자주 鼻炎이 發生되는 것으로 대개 慢性으로 나타나며 季節性 鼻炎과 症狀은 비슷하나 눈이나 鼻腔粘膜의 癢痒感이 거의 없고 주로 아침에 甚한 症狀이 나타나고 하루 한시간 정도씩 1년내내 자주 나타나는 症狀을 말한다.

治療)

慢性 알레르기성 鼻炎은 治療期間이 2-3個月이 必要하고 여기에는 精神的 安靜, 食餌療法, 藥物療法 등의 綜合的 治療가 要求될 뿐 아니라 韓方治療에 있어서 初期에 清涕가 흐를때는 肺가 冷하여 發生되는 것이지만 慢性化하여 濁涕가 흐르는 것은 肺의 風熱에 의해서 發生된 것이다. 그러므로 清涕는 清熱發散劑로서 治療하지만 濁涕는 涼血發散劑로서 治療하며 體力과 抵抗力이 弱하여 慢性化될 때에는 滋陰之劑를 兼하여 治療한다.

處方1)

治風寒, 鼻塞, 聲重, 清涕, 不聞香臭를 兼한 鼻알레르기症(實症)

(通竅湯)

防風 羌活 藁本 升麻 乾葛 川芎 蒼朮 4g, 白芷 麻黃 細辛 甘草 2g, 生薑3片, 葱白2本

處方2)

治耳, 鼻, 咽喉, 肺등의 慢性鼻炎 특히 慢性 鼻알레르기症(實症)

(荊芥連翹湯)

荊芥 連翹 防風 當歸 川芎 白芍藥 柴胡 只殼 黃芩 梔子 白芷 桔梗 3g, 甘

草2g

14. 漢醫學 辭典

鼻鼽: 이는 肺氣의 虛虧, 衛氣의 失固로 因해 寒邪를 感受하기 때문에 생기는 病症이며 그 表現은 항상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를 자주 한다. 過敏性 鼻炎과 類似하다.

15. 東醫肺系內科學

言語 부문에서 嚏를 다루었다. 嚏는 肺에 屬한다. 太陽之氣(一運陽氣)가 和利하여 滿於心하고 出於鼻하므로 嚏가 되는데, 嚏는 鼻中의 痒으로 因하여 氣噴하게 되어 作聲하는 것이다. 鼻는 肺의 竅가 되고 痒은 火化이므로 이것은 火乘金으로 因하여 病이 된 것이다. 肺外症은 面白善嚏한다. 腠理가 不密하면 噴嚏가 不已한다.

欠은 氣乏한 것이고, 嚏는 氣通한 것이다.

16. 東醫小兒科學

알레르기성 鼻炎은 東洋醫學의 鼻鼽에 해당되며 鼻嚏라고도 한다. 病因病理)

鼻는 肺竅가 되고 가려운 것은 火가 變化한 것이니 火가 金을 乘하여 病이 된 것이다.

症狀)

鼻孔內가 가렵고 氣가 噴出할 때 소리를 내며 水樣鼻漏, 鼻閉塞, 재채기의 症狀이 있다.

治法)표1)

17. 五官科學

慢性 鼻炎의 範疇안에서 過敏性 鼻炎을 說明했다. (慢性 鼻炎은 單純性 鼻炎, 肥厚性 鼻炎, 過敏性 鼻炎, 萎縮性

표 1

| | | | |
|----|-------|----|------|
| 急性 | 清肺 | 慢性 | 內托生肌 |
| | 黃芪內托散 | | 通竅湯 |
| | 麗澤通氣湯 | | 防風湯 |
| | 清肺散 | | |

鼻炎의 4種을 말한다). 內經에 鼽嚏症에 對한 說明이 있는데 이것은 急性 鼻炎을 가리킨다. 단, 過敏性 鼻炎도 이 範疇內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鼽'는 鼻流涕를 말하고 '嚏'는 鼻中作痒噴氣作聲而出하는 것이므로 涕를 흘리고 噴嚏가 있다는 것은 過敏性 鼻炎의 主要症狀이기 때문이다.

病因病理)

肺는 嬌臟으로 外合皮毛하는데 만약 腠理가 緻密하지 못하면 쉽게 外邪의 侵入을 받는다. 外邪는 六淫之邪를 말하는데 그 중 風이 百病之長인고로 本病도 風이 先導가 되어 寒, 熱, 燥 등을 끼고 風邪를 따라 肺系에 들어가게 된다 鼻流涕, 噴嚏類作하는 것은 風寒之象이다. 西洋醫學의으로 過敏性 鼻炎은 鼻腔粘膜이 過敏抗原, 예를 들면 粉塵, 冷熱, 異種蛋白質 등의 刺戟을 받아 發한다.

治療)

突然鼻塞, 鼻痒噴嚏類頻하며 鼻流涕를 동반하면 衛陽이 不固하여 風寒이 虛한 틈을 타 肺系를 犯한 것이므로 治療는 疏散風寒한다.

麻黃湯加減(生麻黃 川桂枝 各一錢, 生赤芍 防風 各三錢, 烏梅肉 一錢, 生甘草 一錢, 辛荑花 三錢, 蒼耳子 三錢)

新針治療: 風池透風池, 迎香或夾鼻, 印

堂, 合谷, 列缺, 曲池 每次 2-3穴을 交代로 針刺한다.

18. 中醫學問答

일반적인 鼻病으로 鼻風, 鼻扇, 鼻塞, 鼻流清涕, 鼻流濁涕, 鼻乾無涕, 鼻瘡, 鼻疔 등이 있다고 하고 各各의 原因과 治法을 제시했다.

鼻塞: 鼻竅不通之證

原因은 感受風寒 或風熱之邪하여 肺氣不宣, 清竅不利한 것이다.

1) 因風寒 鼻塞清涕者

治 辛溫宣肺 - 杏蘇散

2) 因風熱 鼻塞涕稠者

治 辛涼宣肺 - 桑菊飲

鼻流清涕: 風冷襲于肺衛, 上乘鼻間하여 津液이 不收하기 때문이다.

治 溫肺散寒 - 細辛散

<西洋醫學的 調查>

1. 알레르기성 비염의 특성과 원인.

최근 환경오염, 공해의 증가 등에 따라 알레르기성 비염이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고 한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전 인구의 약 10% 내외로 생각하고 있다.⁵⁾

발병은 어느 나이에서도 시작할 수 있으나 소아와 청소년기에 흔히 발생하며 남녀의 비는 큰 차이는 없으나 20세 이하에서는 남성에서, 20세 이상에서는 여성에서 많으며 50대 이상에서는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다. 그리고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시골보

다 도시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또한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는 대부분 알레르기의 가족력을 가지고 있다. 즉 알레르기성 천식, 약물 알레르기, 두드러기, 접촉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등의 질환 중 적어도 한가지를 가족 중에 가지고 있는 경우가 약 반 수이다.⁵⁾ 한축이 아토피 질환의 기왕력이 있는 경우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약 30%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부모 양측 모두가 있는 경우는 자녀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러나 유전형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⁵⁾

1) 원인 물질

흡인성 항원에는 화분(꽃가루), 집먼지, 집먼지 진드기, 진균(곰팡이)포자, 세균, 동물 상피물질(털, 비듬)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며⁵⁾ 음식물도 알레르기의 한 원인으로 작용한다.^{1,5)}

2) 분류

(1)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급성형으로 화분이나 곰팡이류의 일부(Alternaria, Cladosporium)가 항원으로 작용하여 일정한 계절 혹은 기간에만 증상이 나타나는 비염으로서 계절성 알레르기성 비염 혹은 화분증(花紛症), 고초열(hay fever)이라고 한다.²⁾ 임상증상은 발작성 재채기, 수양성 비루, 비폐색 등이며 눈이나 구강점막 특히 비점막에 소양감이 있을 수 있다.⁶⁾

(2)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형으로 집먼지 진드기 등에 의해서 증상이 야기되고 증상은 연중 오랜 기간 발병하므로 통년성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한다.²⁾ 임상증상은 계절성과 같은 증상을 나타내나 눈과 구강의 소양감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증상은 주로 아침에 나타나고 1년내내 하루 1시간 이상의 증상이 있다.

2. 발생기전²⁾

1) 發症機轉

(1) 抗原의 侵入과 感作

항원(집먼지 진드기, 화분, 곰팡이 등)이 흡입성으로서 비강에 직접 침입한다. 항원의 침입이 반복되면 아토피성 체질을 가진 사람의 면역계가 자극되어 항체가 생산되어 감각된다.

(2) IgE 抗體의 生産

IgE 항체는 항원 특이성이 있으며 감각된 B-림프구에 의해서 형질세포에서 생산된다.

(3) IgE 結合細胞

IgE 항체를 결합하는 세포는 조직의 비만세포와 혈중의 호염기구이다.

(4) 抗原 抗體反應에 의한 脫顆粒과 化學媒介體의 遊離

항원이 침입하면 비만세포와 호염기구 표면에 결합된 항체와 항원 항체반응을 일으켜 세포의 탈과립이 일어나 화학매개체가 유리된다.

(5) 化學媒介體로 藥理作用에 의한 組織反應과 症狀의 發現

(a) Histamine

① 上皮:상피의 투과성을 항진시켜서 항원이 직접 점막내로 침입하여 기질내의 비만세포와 반응한다.

② H₁ 및 H₂ 受容體에 대한 作用

◆혈관(H₁과 H₂ 수용체):혈관 투과성 항진에 의한 부종으로 비점막이 증창되어 비폐색감을 느끼게 함.

◆비선(H₂ 수용체):비분비물 성상의 변화로 점액당단백(粘液糖蛋白, mucous glycoprotein)이 증가.

◆신경

i)삼차신경: H₁ 수용체의 자극반사로 재채기 발작

ii)삼차신경 및 부교감신경: 비선의 증식과 분비 항진으로 비루.

(b) 好酸球遊走因子(ECF-A): 조직내에 호산구를 침윤시킨다.

(c) PAF:혈소판의 활성화로 아민(amin)이 유리되어 알레르기 반응을 증가시킨다.

(d) SRS-A: Leukotrine으로 알려져 있고 알레르기 염증의 지연 반응에 관여한다.

3. 진단²⁾

1) 第 1 段階 檢査:문진, 비경검사 및 비즙내 호산구검사.

2) 第 2 段階 檢査

(1) 피부검사

(2) 비점막유발시험

3) 第 3 段階 檢査 : 특이적 IgE 항체

의 증명

4) 補助的 診斷

- (1) 혈중 호산구 시험
- (2) 혈청 IgE치
- (3) 비점막 생검

5) 綜合判定

이상의 여러가지 검사를 종합하여 확진하여야 한다. 진단기준은 판정하는 의사나 환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

4. 치료^{2, 5, 6)}

1) 항원 회피요법

2) 약물요법

(1) 항히스타민제

알레르기성 비염 치료의 대증요법제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재채기와 수양성 비루에 효과가 있다.

(2) 교감신경 자극제

말초혈관수축으로 비점막의 부종 및 충혈을 제거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비폐색감에 유효하다.

(3) 크로몰린 소듐(cromolyn sodium)

비만세포막을 안정시켜 히스타민 등 화학매개체의 유리를 억제한다.

(4) 스테로이드 제제

면역반응과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아토피성 질환의 면역반응에 대한 작용기전은 아직도 불확실하다.

3) 수술요법

(1) 비강 정복술

(2) 폴립 절제술

(3) 익돌관신경 절제술

4) 면역요법

원인 항원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항원을 소량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피하주사하여 면역반응을 변화시켜 IgE항체 생산의 억제를 기대하는 요법으로서 아직도 그 효능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다.

III. 考察

알레르기성 鼻炎이란 一種의 頑固한 疾患으로서 患者가 항상 氣候變化에 의하거나 冷溫이 不調한 空氣를 만난 다거나 煤煙, 花粉, 化粧品, 먼지, 動物의 털, 魚類의 鱗粉, 煙草粉, 綿粉, 各種 gas, 異種蛋白 즉 肉類, 달걀, 魚介類 등의 異物刺戟으로 갑자기 連續的인 噴嚏를 하고 同時에 鼻涕가 흐른다. 또한 過熱, 過勞, 精神運動, 內分泌 障礙 등으로도 起因되어 頭痛과 精神 疲勞 등 神經症狀이 계속 發生한다.

本症은 水樣鼻漏(watery discharge), 鼻閉塞(nasal obstruction), 재채기(sneezing) 등 三代症狀이 나타나는 것이 대부분이다.⁹⁾

鼻鼈^{8,27)}, 鼻嚏^{8,9,19,27)} 등의 개념에 속하며 鼻塞, 鼻涕症과도 연관된다.¹⁹⁾ 鼻는 肺와 연관되어져 說明되고 있는데,^{11,39)} 肺는 鼻를 主管하는 것으로서¹¹⁾ 五氣가 鼻에 들어가서 心肺에 간직되므로 心肺에 病이 있으면 鼻가 不利하게 되며,^{10,11)} 肺가 外感六淫 특히 風寒에 傷하면 鼻塞, 聲重, 流涕, 噴嚏의 症狀이

發生하며 內鬱七情으로 臟腑氣血에 影響을 미쳤을때도 역시 그와 같은 症狀이 發生한다고 본다.⁴⁰⁾

蔡⁹⁾는 鼻嚏(噴嚏)를 알레르기성 鼻炎(過敏性 鼻炎)으로 說明하고 鼻齶는 急性 鼻炎으로 따로 說明했는데 알레르기성 鼻炎의 誘發要因을 傷風으로 보았으며, 一時的으로 噴嚏, 鼻塞, 流涕가 있는 一般 傷風患者가 治療後 낫지 않고 慢性이 되면 鼻粘膜이 점차 充血되고 肥大되어 鼻下甲이 增厚되고 鼻腔의 狹窄으로 空氣의 溫度調節作用을 喪失케하며 冷溫의 空氣를 呼吸하거나 煤煙에 接觸되거나 花粉등의 害物로 말미암아 紅腫된 鼻粘膜이 곧 過敏性 反應을 일으켜 噴嚏를 發生하고 보통 噴嚏할 때는 鼻炎이 더 심해지므로 粘膜分泌가 많아진다. 그러므로 鼻涕가 흐르고 鼻塞不通의 症狀이 있게 된다고 알레르기성 鼻炎의 機轉을 說明하고 있다.

鼻流清涕, 噴嚏頻作 하는 것은 風寒之狀이라고 說明하였는데²⁷⁾ 肺는 嬌臟으로 外合皮毛 하는데 만약 腠理가 緻密하지 못하면 쉽게 外邪의 侵入을 받는다. 外邪는 六淫之邪를 말하는데 그 중 風이 百病之長인고로 本病도 風이 先導가 되어 寒, 熱, 燥 등을 끼고 風邪를 따라 肺系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였다

알레르기성 鼻炎이 하나의 概念만으로 定義되지 않기 때문에 發顯되는 各 症狀들에 對한 說明을 살펴봄으로써 그 原因과 治法에 接近할 수 있을 것이다.

그 症狀들 중 특히 噴嚏에 對한 說明

이 多樣한데 靈樞에서는 太陽의 氣(陽氣)가 調和되고 원활하여 心臟에 充滿되었다가 鼻孔으로 나올때 噴嚏가 일어난다고 하였고, 難經에서는 肺의 外症은 面白하면서 噴嚏가 일어난다고 說明하였다. 즉 噴嚏란 鼻孔內가 가려우면서 氣가 噴出할때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鼻는 肺竅가 되고 가려운 것은 火로 變化한 것이니 이것은 즉 火가 金을 乘하여 病이 된 것이다.^{34,35)} 噴嚏의 原因을 정리해 본다면 心火와 邪熱이 陽明經에 侵犯하여 鼻에서 發生하며 가려우면 噴嚏하고,³⁵⁾ 氣候나 季節과 關係있는 것으로서 火가 旺盛하는 해나 달 및 日光을 봄으로서 發生한다.^{11,35,38)} 日光을 보게되면 噴嚏하는 것은 눈이 五臟의 精華로 말미암아 太陽眞火인 日光이 눈에 비치면 心神이 躁亂하여 上部가 發熱하고 鼻孔이 가려우면서 噴嚏하게 되는 것이다.³⁵⁾ 또한 傷寒病에 再經이 되면 衰弱해져 噴嚏하게 되는데 火熱이 이미 退去하였기 때문에 虛熱이 가려움으로 變化한 것이다.^{9,35)} 또 腠理가 不密하게 될 때 噴嚏가 發生하며 혹은 寒邪가 侵犯하여 內鬱되었을 때도 發生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⁹⁾ 이러한 것들은 알레르기성 鼻炎의 原因과 비교해 볼 수 있다.

鼻塞이나 鼻流清涕의 原因이 風寒임을 여러 文獻^{10,26,27,30,31,37,38,40,42)}에서 說明하고 있는 바 알레르기성 鼻炎의 主要한 原因이 風寒임을 알 수 있다. 最近 주²³⁾는 알레르기성 鼻炎患者는 溫度에 對한 특히 주위의 찬공기에 對한 過敏現象이 있다고 하였고, 호^{22,24,25)} 등

은 最近에는 通年性 알레르기성 鼻炎의 비율이 높아졌으나 季節性을 띠는 경우에는 겨울에 多發한다고 報告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위의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단 通年性인 경우가 增加하는 趨勢에 있는 것으로 볼 때 全的으로 氣候와 關聯된 季節性 疾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알레르기성 鼻炎의 症狀는 全身의 疲勞를 많이 느낄때, 神經을 과도히 썼을때 또는 感氣에 걸렸을때에도 쉽게 發顯되는데 이것은 體力消耗로 因하여 發生된 熱이 肺의 津液을 損傷시키기 때문이다.¹⁹⁾ 內的인 感情要因으로서 七情, 특히 화를 낸다거나 지나치게 참는 다 던지 또는 各種의 스트레스 등으로 마음이 興奮될때 上氣되는 虛熱에 의해서도 肺가 損傷되어 肺燥狀態가 되므로 알레르기성 鼻炎을 誘發한다. 단, 風寒의 感觸 즉 感氣의 初期症狀으로 인한 콧물, 재채기, 코막힘 등은 一時的인 症候로서 여기에서 論하고자 하는 알레르기성 鼻炎에는 該當되지 않는다.

이상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의 原因을 몇가지 살펴보았는데 이제 그 特徵들에 對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알레르기성 鼻炎患者는 알레르기의 家族歷을 가지고 있다. 國內의 研究資料중 알레르기성 鼻炎患者의 알레르기 疾患에 對한 家族歷을 살펴보면 알레르기 症狀에 對한 家族歷이 있는 경우가 54.8%였으며 이것은 알레르기성 鼻炎(30.7%), 두드러기(11%), 接觸性 皮膚炎(7.0%), 喘息(6.1%)의 분포를 보였다.²⁴⁾ 또한 Weeke⁴⁶⁾는 알레르기 疾患을 일으

키는 危險要因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體質이 가장 큰 危險要因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調査는 모두 알레르기성 鼻炎이 家族歷을 가진 體質에 關係되는 疾病임을 보여준다.

診斷上 鼻炎患者의 肥厚되고 充血된 鼻粘膜은 熱에 起因된 病理的 現象이므로 體內에 蓄積된 熱이 많은 體質에서 알레르기성 鼻炎의 可能性이 높다. 心火와 邪熱이 陽明經에 侵犯했을때 發한다는 文獻^{9,35)}의 內容도 이를 뒷받침해 준다. 그러므로 幼兒期에 胎熱이 많았던 어린이에게 알레르기성 體質이 많고, 이러한 體質 가운데서 알레르기성 鼻炎을 가진 어린이가 많이 出現한다.¹⁹⁾

四象醫學的인 側面에서는 太陰人 少陽人 少陰人의 順으로 比較的 太陰人의 發病율이 높다. 太陰人의 경우 肝大肺少한 것이 體質的인 特徵으로 先天的으로 肺少한 것이 體質的인 弱點이기 때문에 外感이나 內傷으로 體力이 低下되면 肺의 機能은 더욱 弱化되면서 肺燥의 狀態가 되기 때문이다.

治療에 對해 蔡⁹⁾는 알레르기성 鼻炎은 體質과 關係있으므로 整體療法을 使用해야 한다고 하여 身體가 健康할 때는 防風湯, 肺風湯, 上清丸, 清肺散을 使用하고, 身體가 衰弱할 때는 消化에 유의하고 生體機能을 增加시켜 전면세 포로 하여금 熱量이 增加되어 活動機能을 回復시키도록 했다. 麗澤通氣湯, 禦寒湯, 柴胡散 등을 使用한다. 부비동염이나 중이염이 併發하였을 때는 通竅湯, 麗澤通氣湯, 金佛草代積石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噴嚏나

不聞香臭에 使用하는 辛溫劑인 麗澤通氣湯과 風寒邪의 侵犯으로 鼻塞, 聲重 등에 쓰는 通竅湯을 合하여 加味通竅湯을 만들어 實驗하였는데 全體 治療率은 70%였고, 他症을 兼하지 않은 알레르기성 鼻炎에 대하여는 83%의 治療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 하였다.¹⁶⁾ 또 王³³⁾의 類方準繩에 처음으로 收錄되어 그 후 여러 醫書에서 腦風, 鼻息不通, 不聞香臭, 鼻流, 多嚏, 肩項拘急, 頭目昏痛, 風府怯寒 등을 主治할 目的으로 使用되어졌던 通關散이 알레르기성 鼻炎에 效果가 있는 것으로 報告되었다.^{17,32,33)}

한편 鼻流涕 즉 鼻鼾에는 外用藥으로 細辛膏가 여러 文獻^{10,30,40)}에서 提示되었고, 康¹⁾은 季節性과 通年性 알레르기성 鼻炎을 各各 나누어 治方을 提示했는데 季節性일 경우에는 肺寒狀態에서 發生하는 것이므로 溫熱發散之劑를 使用하여 抗炎·抗알레르기 作用 즉 免疫機能을 強化하도록 하였는데 感氣와 合病하는 虛症에는 葛根湯을, 感氣와 스트레스를 兼한 實症에는 參蘇飲을, 喘咳·喘鳴·白色痰·재채기·콧물 등의 表寒症에는 小青龍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通年性일 경우에는 평상시 過敏體質로 風寒·鼻塞·聲重·涕涕·不聞香臭할 경우에는 通竅湯을, 耳·鼻·咽喉·肺 등의 慢性炎症을 나타내는 實症에는 荊芥連翹湯을 使用한다고 하였다.

鼻塞의 原因은 크게 두가지로 分類되는데 첫째는 風寒에 依하여 鼻塞, 聲重, 流涕, 噴嚏하는 것으로 衛陽이 不固하여 風寒이 虛한 틈을 타 肺系로 犯한 것이므로 疏散風寒한다²⁷⁾고 하였

는데 治方으로는 麻黃湯加減,²⁷⁾ 羌活沖和湯,¹⁰⁾ 參蘇飲,^{10,37)} 麗澤通氣湯,⁴⁰⁾ 通竅湯^{26,40)} 등이 提示되었고, 둘째는 오래 되어 火鬱로 因한 것인데 淸金降火시켜야 하므로 涼膈散^{10,37,40)}이 應用되었다.

黃²⁰⁾은 알레르기성 鼻炎에 四象醫學의 治療方法을 利用하여 有效한 結果를 얻었는데 太陰人의 寒證(胃脘受寒證)에는 加味調理肺元湯을, 肝受熱證에는 葛根解肌湯을 使用하였고, 少陽人 胃受熱證에는 荊防瀉白散을 脾受寒證에는 獨活地黃湯·荊防地黃湯을, 少陰人 腎受熱證에는 補中益氣湯을 使用하였다. 또한 鼻粘膜 자체를 목표로 하여서는 안되고 보다 根源的 原因이 되고 있는 肺의 燥熱을 다스려야 한다고 主張하여 補血活血劑이면서도 陰虛로 인한 燥熱을 治하는 四物湯에 損傷된 心肺의 機能을 回復시켜 주어서 貧血도 돕고 神經的 障礙까지 治하는 歸脾湯을 合方한 다음 潤肺淸熱之劑나 祛風熱之劑를 隨症加減하여 臨床에서 有益한 結論을 얻었음을 報告하였다¹⁹⁾.

針治療²⁷⁾에 關한 內容도 있었는데 風池와 風池를 透刺하고 迎香 或 夾鼻, 印堂, 合谷, 列缺, 曲池를 每번 2-3穴씩 交叉針刺하도록 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 알레르기는 抗原抗體 反應이라 하는 免疫活動이 過敏하여 病的 變化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免疫과 알레르기는 깊은 關係가 있다. 西洋醫學에서는 알레르기성 鼻炎의 根本的인 治療는 病因性 抗原을 찾아 免疫學的으로 治療하는 脫感作療法이라는 主張²²⁾도 있으나 아직도 그 效能에 대

해서는 論難이 많다. 免疫이니 알레르기니 하는 用語는 어떻게 보면 韓醫學에서 좀 생소한 感이 있으나 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提示되어 왔으며 豫防醫學을 重視하는 東洋醫學에서 免疫疾患에 대한 韓方治療의 可能性을 찾아보는 일은 매우 重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明朝의 [免疫類方]에서 “免疫”이라는 單語가 最初로 出現하였으며⁴³⁾ 免疫關聯內容은 黃帝內經의 “正氣存內 邪不可干” “風雨寒熱 不得虛邪 不能獨傷人” 및 “邪之所湊 其氣必虛” 등에서 비롯되는 正氣學說⁴⁴⁾과 그 內容이 相似하다고 認定되고 있다. [靈樞·本藏篇]에서는 “衛氣者 所以溫分肉 充皮膚 肥腠理 司開闔者也”라 하여 衛氣와 免疫에 關하여 外部 防禦의 役割을 指摘하였으며 [素問·生氣通天論]에서 “風者 百病之始也 清靜則肉腠閉拒 雖有大風前毒弗之能害”라고 하여 비록 邪氣가 盛할지라도 衛氣가 充實하면 疾病이 發生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素問·瘧論]에서도 “衛氣之所在 與邪氣相合 則病作”이라 하여 衛氣가 弱하면 外侵의 病에 지고 만다는 등, 衛氣는 免疫防禦機能과 거의 같은 作用을 하는 것을 알 수 있다.¹³⁾ 즉 正氣란 眞氣나 衛氣로 불리우는데 邪氣에 對한 相對的 用語로 人體生命活動의 總稱으로 볼 수 있으며 生理機能上 病邪에 對해 防禦와 護衛를 하면 衛氣로서 作用하는 것으로 思料된다. 한편 蔡¹⁸⁾는 衛氣는 先天의 正氣와 後天의 水穀之氣에 의해서 生成되므로 作用에서도 非特異的인 自然免疫외에도 주로 細胞性 免疫

과 體液性 免疫으로 構成되어 特異的으로 抵抗性を 나타내는 後天性 獲得 免疫을 同時에 나타낼 것으로 推定된다고 하였다. 즉 衛氣의 作用은 보다 具體的으로 免疫과 일치하는 점이 많은 것으로 볼 수 있다.

正氣와 衛氣의 生成臟腑를 살펴보면 免疫과 臟腑關係를 알 수 있는데 [靈樞·刺節眞邪篇]에서는 “眞氣者 所受於天 與穀氣併而充身也”라 하였다. 天은 先天之氣와 天之清氣를 말하는 것으로 先天之氣는 元氣에 屬하며, 元氣는 腎에 藏하여 生命活動의 原動力이 된다. 穀氣는 水穀之氣로서 水穀은 胃의 納氣作用과 鼻의 運化作用으로 營衛氣血을 化生하므로 肺鼻腎과 免疫은 密接한 關係에 있는데 그 중에서 根本이 되는 것은 腎이라고 볼 수 있다. 腎陽腎陰으로 하여금 全身의 陰陽을 滋助하고 調節하며 平衡機能을 圖謀하는 것이 곧 免疫機能의 調節이 되는 것이다. 脾는 水穀精微의 運化를 主管하며 氣血營衛의 바탕이며 後天의 根本이 된다. 肺는 皮毛를 主管하는데 皮毛란 皮膚·粘膜·肌肉·汗腺·毛髮등을 包括하여 外邪의 侵入經路가 되므로 이 防禦機關이 된다. 그러므로 이 三臟의 虛實如何에 따라 免疫機能이 左右될 수 있다.

[靈樞·本藏篇]에 “經脈者 所以行血氣而營陰陽”이라 하였고 [靈樞·九針十二原篇]에 “通其經脈 調其血氣”라 하여 人體를 營養하여 生命을 維持하는 物質의 運行流注의 動力이 곧 經氣라 할 수 있어 防禦機能의 反映部가 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經絡氣血도

免疫과 關聯이 있음을 說明하는 것이다.

또한 先天稟賦에 관하여 [靈樞·天年篇]에 “人之始生 以母爲基 以父爲楯…”이라 하였으며 漢代의 王充은 “夫稟賦 渥則其體強 稟賦薄則其體弱”이라 하였고 [靈樞·陰陽二十五人篇]에서는 木火土金水形 등 二十五種人의 體質의 特徵과 所稟氣血의 多少를 論述하였는데 人間의 가장 重要하고 基本이 되는 先天稟賦가 疾病에 有關하며 선천적 免疫에도 큰 要因이 됨을 알 수 있다.

免疫疾患의 하나인 알레르기성 鼻炎에 應用된 臨床例와 實驗研究를 살펴 보면 언급된 處方들의 構成藥物이 發散藥 爲主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癩疹의 治療에서 風寒에 依한 경우에 자주 應用되는 清肌散加減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王⁴⁵⁾이 重症의 경우에 六味地黃湯이나 補中益氣湯을 加減한 점이라든지, 婁¹⁴⁾가 肺腎兩虛증에 小青龍湯에 六味地黃湯을 合方使用한 점이나, 黃¹⁹⁾이 四物湯에 歸脾湯을 合方하고 潤肺清熱之劑나 祛風熱之劑를 隨症加味한 경우 등은 注目할 만하다. 劉³⁶⁾의 免疫抑制劑의 대부분이 이에 속하는 점과 鄭¹⁵⁾과 蔡⁷⁾가 加味通竅湯과 通關散의 免疫抑制劑로서의 效能을 實驗的으로 立證한 것으로 미루어 알레르기성 鼻炎의 免疫學的 韓方療法の 可能性을 確認할 수 있다.

이제 小兒의 알레르기성 鼻炎에 關해 살펴보면, 과거에는 成人에게서 發生 頻度가 높았으나 최근에는 幼兒나 學齡期 兒童들에게도 많이 發生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1,21)} 이는 幼兒때부터 우유나 빵, 계란, 인스턴트 식품의 濫用으로 通年性 鼻炎 患者가 增加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고 보여진다.¹⁾ 小兒의 경우는 약 5-9%에서 볼 수 있으며 嬰·乳兒에서는 음식 특히 우유가 가장 흔한 原因인데,¹²⁾ 嬰兒에서 생기는 알레르기 反應은 약 85%가 食品과 關聯이 있다고 한다. 嬰兒期에 흔한 食品 알레르겐을 豫防的으로 피하는 것은 알레르기가 發生할 危險性을 減少시키거나 적어도 遲延시키게 된다. 그것은 腸管의 防禦機能이 아직 不完全하므로 이렇게 함으로써 食品에 의해 減作되는 것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주 甚한 아토피 素質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여도 減作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아주 적은 量의 알레르겐이라도 免疫反應을 일으키기에는 充分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生後 6個月 동안은 母乳營養을 주는 것이 좋으며 이는 알레르기의 發生 危險을 줄이는 한 가지 方法이다. 母乳에는 IgA와 같은 特異한 抗體가 含有되어 있어 飲食物에서 抗原이 吸收되는 것을 防止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란, 생선, 호두, 도마도 등 어린이에게서 흔히 食品 알레르기의 原因이 되는 食品에 대해서도 적어도 生後 9개월까지는 먹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될 것이다.¹⁾ 또한 小兒後期에는 집먼지나 꽃가루 등의 吸入性 抗原이 問題가 된다. 대개 父母들도 알레르기 疾患이 있는 경우가 많다.¹²⁾ 알레르기 疾患에는 環境 또는 遺傳的인 要因이 關聯되는데 어린

이가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危險度는 양쪽 父母가 알레르기 疾患이 있거나 既往歴이 있으면 30-40%, 한쪽 父母가 알레르기일 때는 20-30%, 父母가 아닌 가까운 親戚 중에 陽性이면 10-15%, 家族中에 既往歴이 없으면 5-8%의 危險度가 있다는 報告가 있다.⁴⁾

診斷時에는 問診이 重要하며 자세한 家族歴, 環境의 變化, 症狀이 惹起되는 季節·場所·時間 및 發作回數 등을 알아야 한다.

또한 알레르기성 鼻炎이 있는 小兒들에게서는 基本的인 症狀외에 特異한 身體的 變化를 觀察할 수 있다. 즉 눈 밑에 보라빛으로 알레르기성 色素 沈着(allergic shiner)을 볼 수 있는데 이는 鼻粘膜의 浮腫으로 因한 그 部位의 靜脈血 停滯가 原因이다. 코가 가려우므로 손바닥으로 코 끝을 비비며 위로 올려민다(allergic salute). 이런 症狀이 反復되면 코의 아래 1/2부분에 옆으로 주름이 생긴다(transverse nasal crease). 코가 가렵고 鬱血이 생기며 연구개 및 인두부위의 가려움증으로 인해서 목을 가다듬는(throat clearing) 버릇이 생긴다.¹²⁾ 또한 심한 재채기로 인해서 또는 심하게 코를 풀거나 코를 후비기 때문에 약한 鼻粘膜에 損傷을 주어 反復되는 鼻出血이 생길 수 있다.³⁾ 또한 慢性 中耳炎과 부비동염이 올 수 있으며¹²⁾, 알레르기성 結膜炎과 同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結膜의 充血과 가려움증, 눈물의 過多分泌등이 觀察되며, 滲出性 中耳炎에 걸릴 可能性이 많으므로 鼓膜을 잘 觀察하고 必要하면 聽力檢査로 確認해야 한다.⁵⁾ 코가 자주

막히므로 新生兒 때부터 입을 항상 벌리고 그 벌린 입으로 숨을 쉬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어려서 부터 齒牙의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다.³⁾ 심하면 어린이가 보채고 疲勞해하며 입맛이 없어지고 배가 아프다고 한다.¹²⁾ 이러한 여러 症狀들을 잘 觀察하면 診斷時 도움을 받을 수 있다.

治療는 세가지 方法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는데 첫째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物質과 接觸하지 않도록 하는 것, 둘째 이미 생긴 알레르기는 症狀에 따른 對證治療를 하는 것, 셋째 脫感作療法을 하여 해로운 抗體를 몸에서 除去하는 것인데 一般的인 治療와 비슷하나 특히 嬰乳兒의 경우는 回避療法으로 原因이 되는 食品을 제거한 食餌療法이 重要하다.

IV. 結論

알레르기성 鼻炎에 關해 여러 文獻을 觀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알레르기성 鼻炎이란 콧물, 코막힘, 재채기 등의 三代症狀을 特徵으로 하는 免疫疾患의 하나로 鼻鼾, 鼻嚏 등의 概念에 속한다.
2. 原因은 外感六淫 특히 風寒, 內因으로는 七情, 全身의 疲勞 등이다. 惡化要因으로는 體質, 氣候變化, 家族歴 등이 있으며 出生期間, 性, 人種, 食事, 다른 알레르기 疾患의 存在, 吸煙, 公害 등도 關聯된다. 嬰幼兒에서는 飲食 특히 우유가 가장 흔

한 發病要因이다.

3. 治療는

- ① 整體療法을 使用해야 하고, 季節性 일 경우에는 溫熱發散之劑를, 通年性일 경우에는 通竅湯, 荊芥連翹湯 등을 使用한다.
- ② 四象醫學的으로는 太陰人의 寒證 (胃脘受寒證)에는 加味調理肺元湯을, 肝受熱證에는 葛根解肌湯을 使用하고, 鼻粘膜 자체보다는 根源의 原因인 肺의 燥熱을 다스려 주어야 한다.
- ③ 알레르기性 鼻炎에 一般的으로 많이 使用되는 發散藥 爲主의 處方에서 벗어난 免疫學的 立場에서의 더 많은 韓方療法 研究가 必要할 것으로 思料된다.
- ④ 嬰乳兒의 경우는 回避療法으로 原因이 되는 食品을 除去한 食餌療法이 重要하며, 적어도 生後 6個月 동안은 母乳營養을 주는 것이 알레르기의 發生 危險을 줄이는 한 가지 方法이다.

參 考 文 獻

1. 康秉秀 : 漢方臨床알레르기, 서울, 成輔社, 1988, pp83-98
2. 康晰榮 : 알레르기 疾患 臨床의 實際, 서울, 一湖閣, 1988, pp176-182
3. 康晰榮 : 알레르기 疾患의 診斷과 治療, 서울, 一湖閣, 1987, pp99-111
4. 康晰榮 : 臨床알레르기學, 서울, 廣文閣, 1984, pp34-41, pp103-109
5. 대한알레르기학회 : 4천만의 알레르기, 서울, 小花, 1993, pp133-161
6. 醫學教育研修院 : 家庭醫學,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1, p684
7. 李珩九, 鄭昇杞 : 東醫肺系內科學, 서울, 民瑞出版社, 1991, p290
8. 丁奎萬 : 東醫小兒科學, 서울, 杏林出版, 1990, pp577-579
9. 蔡炳允 : 漢方眼耳鼻咽喉科學, 서울, 集文堂, 1989, pp245-250
10. 許 浚 : 東醫寶鑑, 서울, 大星文化社, 1990, pp203-205, p269
11. 洪元植編 : 精校黃帝內經,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1, p146, 262
12. 洪彰義 : 소아과학, 서울,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93, pp1062-1064
13. 具本泓 : 免疫과 알레르기,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1卷 第2號, pp 9-10
14. 裴元植 : 알레르기성 鼻炎의 治療와 豫防,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

- 11卷 第2號, pp16-17
15. 鄭東郁 : 加味通竅湯이 생쥐의 免疫反應에 미치는 影響,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0卷 第1號, 1989, pp99-106
 16. 蔡炳允 : allergy성 鼻炎(噴嚏)에 대한 臨床的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3卷 第1號, 1982, pp1-87
 17. 蔡炳允 : 알레르기성 비염에 이용되는 通關散의 藥效學的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1卷 第1號, 1990, pp165-179
 18. 蔡禹錫 : 면역질환의 한방개념과 치료에 관한 문헌적 고찰,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1卷 第2號, pp 54-91
 19. 黃敬植 : Allergy性 鼻炎에 關한 韓醫學的 研究,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7卷 第2號, pp35-36
 20. 黃敬植 : 알레르기鼻炎에 對한 四象醫學的 治療, 서울, 大韓韓醫學會誌 第14卷 第2號, 1993, pp414-417
 21. 방은영 : 알레르기성 비염의 임상적 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醫學科 碩士學位論文, 1989
 22. 趙貞蘭 :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의 임상적 연구, 서울,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醫學科 1982년도 碩士學位請求論文, 1983
 23. 주형관 : 알레르기성 비염환자에서 온도부하에 따른 비점막 과민현상에 관한 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 석사학위논문, 1989
 24. 호승희 : 알레르기성 비염의 감별 진단, 치료방법 및 치료결과간의 구조분석, 서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4
 25. 홍민기 : 알레르기성 비염의 임상적 연구, 서울, 중앙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석사학위논문, 1990
 26. 龔廷賢 : 萬病回春, 서울, 杏林書院, 1972, 卷下 pp13-14
 27. 上海中醫學教材 : 五官科學, 香港, 商務印書館, 1982, pp95-98
 28. 孫思邈 : 備急千金要方,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10
 29. 孫一奎 : 赤水玄珠(欽定四庫全書卷34),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96
 30. 楊醫並 : 中醫學問答,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5, p297
 31. 嚴用和 : 濟生方(欽定四庫全書卷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97
 32. 吳克潛 : 古今醫方集成, 서울, 간성社, 1980, p1576
 33. 王肯堂 : 類方準繩, 서울, 柳林社, 1975, p448, 701
 34. 王肯堂 : 證治準繩(欽定四庫全書卷35),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 336
 35. 劉完素 : 河間三六書, 서울, 成輔社, 1976, pp275-276
 36. 劉正才 : 中醫免疫, 中國, 重慶出版社, 1983, pp8-13
 37. 李挺 : 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84, 卷4 p170
 38. 張介賓 : 景岳全書, 서울, 驪江出版社, 1987, pp573-575

39. 張世賢編 : 校正圖註難經, 中國, 鴻寶齋書局, 1510, 1:6-7
40. 周命新 : 醫門寶鑑, 서울, 杏林書院, 1971, p204
41. 陳言 : 三因極一病證方論(欽定四庫全書 卷11),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386
42. 徽宗勅編 : 聖濟總錄纂要(欽定四庫全書 卷7), 서울, 大星文化社, 1995, p402
43. 沈承抗 : 中醫與免疫, 浙江中醫學院報, 1990, 14(2) p6
44. 嚴宗正 : 正邪論新釋, 新中醫, 1984, 6 pp5-6
45. 王大明 : 過敏性鼻炎的治療, 中醫年鑑, 1984, p287
46. Weeke ER : Epidemiology of allergic disease in children, Rhinology supplement, 1992, 13(9) pp5-12